

●●● 나카무라미트수오(中村光夫) 일본양계협회장

## 일본 후생성 “계란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발표



나카무라미트수오(中村光夫) 일본양계협회장

### 방문 목적은?

양국 양계협회간의 우호를 다지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양계협회 조직 및 활동사항을 배우고 특히,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계협회간의 정례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의 양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일본 양계업계 현황은?

지난 1948년부터 사육수수 등을 규제해오던 일본의 양계업계가 2001년 고이즈미 총리가 부임하면서 많은 규제들을 풀었습니다. 양계업계도 계획생산을 철폐하고 사료업계도 정부에서의 관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군업자들과 소군업자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농장규제가 과거보다 자유로워져 사육수수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계란생산자협회가 만들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대군업자들과 소군업자들간의 반목을 줄이고 화합차원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저는 일본 북쪽지방에 위치한 이와테현에서 170만수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100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곳이 20여 농장 있습니다. 800만수, 400만수, 300만수를 생산하는 3개 농장이 규모가 큰 농장이고 나머지는 저와 같은 수준의 농장들입니다. 10만수 이상의 농장은 360여 농가로 생산수수기준으로는 전체 사육수수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일본양계협회를 소개한다면?

일본양계협회는 지금부터 58년 전인 194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종계·부화업을 중심

으로 기반이 형성되어오다 현재는 채란업의 규모화가 이루어지면서 채란업 위주로 협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일본계란생산자협회가 새로 발족되면서 생산자들의 힘이 더욱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양계협회의 예산은 1억엔(약 8억원)이며, 회비는 약 4천만엔(약 3억2천만원) 정도가 거출됩니다. 저는 4년전 양계협회장을 맡아 이끌어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양계협회장이 정부의 낙하산식 인사로 이루어졌지만 2000년 들면서 생산자들이 회장직을 맡으면서 협회가 생산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식조협회(日本食鳥協會)는 태생이 다릅니다. 일본은 재래닭(지도리)의 비중이 컸던 관계로 닭고기 산업의 발전과 함께 약 40여년 전 자연스럽게 별도의 조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은?

일본은 1900년대 초 이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던 것이 지난 2004년 80여년만에 다시 발병하였고, 2005년에 이어 2007년 다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은 철새가 한국보다 많지 않고 발생 즉시 살처분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농장만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단 한 농장만 예외가 되었는데 발생농장과 너무 가깝고 확산우려가 있어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 함께 방만한 무라이시아이지(村石愛二) 부회장(좌)과 시마다히데유키(島田英幸) 전무(우)



▲ 지난 6일 본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일양계협회 친선 교류회 장면

서 발병한 농장은 도산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방문 한 부분도 한국의 보상체계에 대해 알기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수당 2,000엔(1만6천원)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은 한국처럼 감염원을 철새로 단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원천은 철새에 있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전파경로를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의사, 학자 등 관련인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 일본의 계란소비 홍보 방안은?

일본의 계란 소비량은 1인당 330개입니다. 우리도 한때 360개까지 소비를 하던 때가 있었지만 계란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3년 전부터 매년 미국의 계란 전문가를 불러 전국의 의사, 영양사를 대상으로 '콜레스테롤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지금은 인식이 바뀌었고 식품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후생성에서 금년에 공식적으로 계란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일본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조금제도는 없지만 생산자들 특히, 대군업자들을 중심으로 수당 3.6엔(약 25원)을 거출하여 홍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홍보노력을 기한다면 소비를 크게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